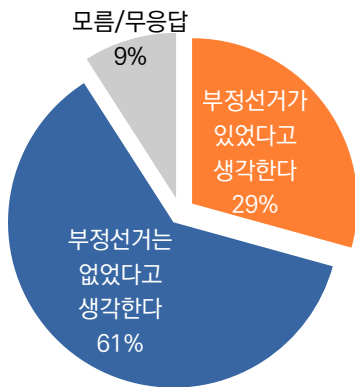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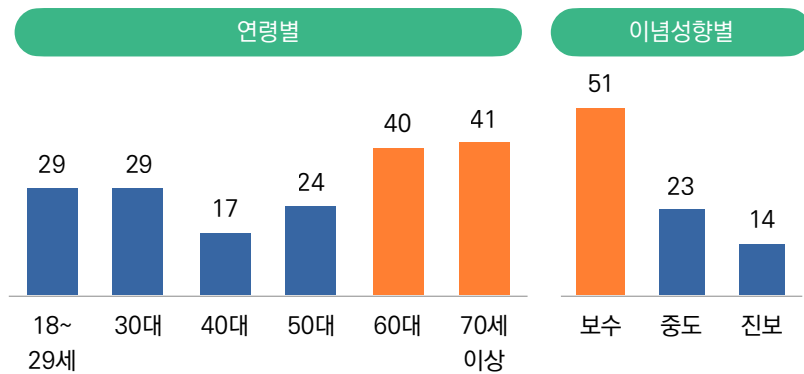
[2025년 언론사 신년 정치여론조사 주요 결과] 우리 국민 보수층, 절반이 '부정선거 있었다'고 생각

- 매해 초면 여러 언론사에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중 정치 관련 주요 이슈 몇 가지만 꼽아 살펴본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.3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조사결과 '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' 61%, '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' 29%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'부정선거가 있었다'는 인식을 내비쳤다.
- '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'은 60대 이상 연령층(40%대), 진보(14%)나 중도(23%)보다는 보수층(51%)에서 크게 높았다. 특히 보수층의 경우 절반이나 부정선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.

[그림]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의견



[그림] 연령별/이념성향별 '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한다' 비율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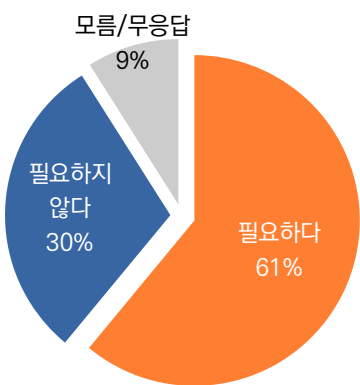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MBC, 2025년 신년 특집 정치·사회현안 여론조사 통계표, 2024.12.31. (코리아리서치,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,003명, 무선전화면접, 2024.12.29.~12.3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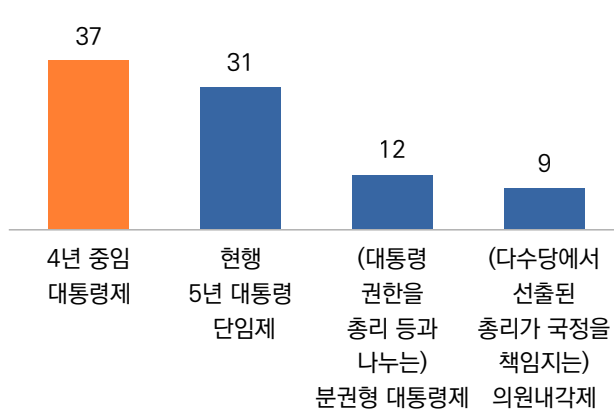
국민 61%, 개헌 필요하다!

-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'필요하다' 61%, '필요하지 않다' 30%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배 정도 많았다.
- 개헌 시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는 '4년 중임 대통령제'가 37%로 '현행 5년 대통령 담임제'(31%)보다 다소 높았고, 그 외에 '분권형 대통령제'(12%), '의원내각제'(9%) 순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개헌 필요성 인식*



[그림] 개헌 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 (%)



※출처 : KBS, 2025년 신년 여론조사 결과표, 2025.01.01. (한국리서치,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무선전화면접, 2024.12.29.~12.31.)

*4점 척도